



작성자

중학생



책제목

씹쓸한 초콜릿

학생 작성 글

▶(가)이 아이는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불러도 칠판으로 나가지 않고 고개를 수그리는 아이이고, 체육시간에 묶었던 신발 끈을 다시 풀어서 묶는 아이이다. 샤워실에 가장 늦게 들어가고 학교에 자기 구석도 있다. 이 아이, 그러니까 예바는 자기가 똥똥하다고 생각하는 15살의 소녀이다. 예바는 자기가 너무 똥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1) 어울리질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바가 공원에서 기름진 하얀색 마요네즈를 넣은 회분홍색의 청어 샐러드 200그램을 (2)공원에서 몰래 먹던 그날 예바는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미헬이라고 소개했다. 미헬과 함께 다니던 예바는 미헬을만나고서 많은 것이 달라짐을 느끼고 미헬이 떠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나)이러한 생각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본다. 우리 청소년기에는 아직 성장이 덜 된 상태이므로 모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물론 본인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말에

▶“신체발부 수지부모” (身體髮膚 受之父母) 라 하지 않았는가.

학생 작성 글

- ▶ 부모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이다. 자신의 단점을 맹렬히 보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먼저 장점을 찾아 가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살이 너무 찼다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장기에는 뭐든지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다이어트는 영양소를 (3)불균형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이어트는 삼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은 모델도 있다고하니... 좀 똥똥하면 어떨까, (라)옛날 사람들은 풍만함을 으뜸으로 쳤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의 상징이
- ▶ 아닌가?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4)본인은 생각하는 바이다.
- ▶ 뭐든지 건강해야 할 수 (5)있는것이 아닌가.
- ▶ 우리 모두 살을 빼려고 급급하기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첨삭지도

◆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

▶ 000 학생은 대상 도서를 정독한 후 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독서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꼼꼼히 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정도가 높았다는 점과 더불어 작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했으며 이를 자신의 주변 상황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 흐뭇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도서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도서를 소개하는 부분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 독서감상문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도서의 내용을 참고하되 독서논술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요소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창의적 사고력

▶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와 같은 한자 성어를 인용하여 000 학생이 주장하는 근거를 뒷받침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므로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를 가꾸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근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풍만함을 으뜸으로 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000 학생이 제시하는 논거에 가능한 반론까지 고려한다면 좀더 깊이 있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첨삭지도

◆ 문제 해결력

▶ 000 학생은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한 후 단점을 보완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가꾸어야 하며, 성장기에는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 풍만함은 건강의 상징이라고 하며 외모보다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으나 나열형의 언급에 그쳐 깊이 있는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연 설명이나 예시 등으로 좀더 심층적인 논의 전개를 했으면 합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 글 전체 수준으로 본다면 하나의 주제로 글을 끌고 나가는 힘은 있으나 문단 구성이 미흡합니다. 문단은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문단을 구분해야 하며 특히 논술문을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한 글이므로 문단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문단 구성을 무시하고 쓰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며 논리적인 글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체계성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문단 구성을 하여 글을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위의 글은 서론-(가), 본론-(나) 와 (다), 결론-(라) 등으로 문단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문장 수준에서 본다면 부정문으로 써야 하는데 긍정문으로 써서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으로 만든 경우((3)불균형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가 있고, 한 문장에 같은 낱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공원에서->삭제해야 함)도 있습니다. 단어 수준에서 본다면 띄어쓰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5)있는 것이-> 있는 것이)과 활용을 잘 못 하는 경우((1)어울리질->어울리지)가 있습니다. 또 한문을 번역한 것 같은 문장((4)본인은 생각하는 바이다.-> 본인은 생각한다.)도 있으므로 글을 쓰고 나서 퇴고를 거친다면 이런 오류들은 조금씩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평

▶ 000 학생은 지정 도서를 열심히 읽고 분석한 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했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난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문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단 구성을 적절히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춘 글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면 섬세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은 공부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